유아의 동기 유형 :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상호작용과의 관련성*

Types of Motivation in Young Children :
Associations with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Interactions*

김유정(Yoo Jung Kim)¹⁾

안선희(Sun Hee Ahn)²⁾

ABSTRACT

This research was based on achievement goal theory which categorizes young children's motivation into three types: mastery, the performance-approach, and performance-avoidance motivation.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forty-eight pairs of children aged 3-4 and their mothers. The participants completed two tasks in order to identify their motivational types. The short form of the Child Behaviour Questionnaire(CBQ-SF), modified scales from Kim and Kim(2001), and the GIPEPS were also employed.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motivational types of the given sample, performance-approach motivation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mastery motiv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emperament of young children was not related with their motivational types. Thir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mother-child interaction between groups based on the frequency of feedback, questions, and the percentage of commands. Fourth, the mood of the relationship appeared to be the only factor of maternal interaction quality which related to children's mastery motivation.

* 본 논문은 2014년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4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객원교수

²⁾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 Hee Ah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E-mail : shahn@khu.ac.kr

Keywords : 동기 유형(types of motivation), 유아의 기질(young children's temperament),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mother-child interaction).

I. 서론

동기(motivation)란 과제의 수행이나 도전에 대한 심리적 원동력으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해 반응하는 개인의 태도, 혹은 내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기에 대한 연구는 동기의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가정을 두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Franken, 2007).

동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유형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띠게 된다(Ames, 1992). 특히 학습과 관련된 아동의 태도에 관심을 기울인 많은 학자들은 성취목표지향성 이론에서 파생된 성취 동기의 유형을 기준으로 과제를 대하는 아동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Schunk, Pintrich, & Meece, 2010). 성취목표지향성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취 목표에 대한 태도를 숙달 목표(mastery goal)와 수행 목표(performance goal)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Ames, 1992; Ames & Archer, 1988; Elliot, 1999).¹⁾ 숙달 목표는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달성하려는 목적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지향성임에 반해, 수행 목표는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며,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데 초점을 두는 특성을 일컫는다(Ames, 1992; Dweck, 1986; Dweck & Leggett,

1988; Elliot, 1999; Reeve, 2009; Schunk et al., 2010).

동기와 목표 지향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과제의 수행을 지향하는 목적과 이유가 원하는 결과에 접근하기 위함인지, 혹은 원치 않는 결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동기의 범주가 보다 세분화되었다.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적 태도를 의미하는 접근 기제와 숙달 지향성이 결합될 때 숙달접근 목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목표 지향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제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숙달을 추구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과제에 대한 숙달을 달성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수행접근 목표를 가진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숙달접근의 경우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우수함을 입증하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반면, 회피 기제가 작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숙달회피 목표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과제에 대해 숙달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수행회피 목표를 지향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회피하는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Franken, 2007; Pintrich, 2000; Yang & Cheong, 2012).

1) 학자에 따라 명칭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유형이 서로 대비되는 인지적·정동적·행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Schunk et al., 2010).

이러한 분류 방식은 동기의 유형을 숙달접근 동기(mastery-approach motivation), 숙달회피 동기(mastery-avoidance motivation), 수행접근 동기(performance-approach motivation), 수행회피 동기(performance-avoidance motivation)의 4요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Elliot, 1999; Pintrich, 2000; Skaalvik, 1997). 그중 숙달회피 목표에 근거한 숙달회피 동기는 다른 세 유형의 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호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개념적으로 접근할 때 숙달회피 동기는 과제 완수를 통한 내적 성장을 소극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으로 정의됨으로써, 단지 낮은 수행결과를 드러내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려 하는 수행회피 동기와 구분된다(Bak & Lee, 2005). 그러나 발달적인 면에서 볼 때 이를 분리시켜 반응할 만한 정교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숙달회피 동기와 수행회피 동기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동기 유형을 숙달 동기와 수행접근 동기, 수행회피 동기의 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관심을 두는 동기 연구들은 동기의 수준과 유형을 결정하는 데 개인의 기질이 가지는 역할을 고려한다(Elliot & Thrash, 2002; Judge & Ilies, 2002; Rothbart & Jones, 1998). 가령, 자극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민감성이나 새로운 문제 및 사건을 경험할 때 보이게 되는 적극성, 또는 회피적 성향은 생물학적 접근 경향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Elliot & Thrash, 2002),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동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질적인 개인차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lliot과 Thrash(2002)는 성취 목표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서 및 행동을 관할하는 기본적인 동기 체계와 기질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일련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신경생물학적 기질이 성취 목표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질을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자극에 민감한 기질이 숙달 목표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부정적인 자극에 민감한 기질은 회피적 특성의 수행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로 인해 나타나는 동기의 편향성에 대해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몇몇 연구들을 통해 동기에 나타나는 개인차가 기질적 경향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Judge & Ilies, 2002). 특히 Rothbart와 Jones(1998)는 유아의 숙달 동기가 기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동기에 나타나는 개인차가 기질적 경향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동기 유형에 따라 유아의 기질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유아의 동기 유형과 관련된 개인 외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상호작용 특성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유아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지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유아의 행동에 따른 부모의 상호작용 안에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같은 많은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특성이 유아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어머니의 상호작용 특성을 상호작용의 전략과 질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호작용의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자율성이 내재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음에 주목한 선행연

구들(Froiland, Oros, Smith, & Hirschert, 2012; Patall, Cooper, & Robinson, 2008)은 자율성을 지지해 줌으로써 내재적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으로써 칭찬(Cimpian, Arce, Markman, & Dweck, 2007; Froiland et al., 2012; Zentall & Morris, 2010)이나 통제(Deci, Driver, Hotchkiss, Robbins, & Wilson, 1993) 등은 아동의 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한 맥락에서 국내의 연구(Do, 2008)에서는 양육참여도가 높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이 자녀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어머니의 상호작용 특성의 다른 측면으로 상호작용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이 언어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을 다룬다고 본다면, 상호작용의 질은 비언어적인 태도와 암묵적인 분위기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okoda와 Fincham(1995)의 연구결과에서는 숙달지향 목표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는 반면, 무기력한 아동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 피드백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실패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정동을 적게 보인다고 밝혔다. 유아의 동기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검증한 Meij, Riksen-Walraven와 Van Lieshout(2000)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모 지지의 변화 패턴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Kim, Doh와 Park(2010)의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어떤 식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성취동기 수준이 달라지며, 부모의 양육행동

을 수용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의 경우에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전반적인 부모의 양육 특성이 자녀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부모의 상호작용의 질적 특성 또한 자녀의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과제를 숙달하고 해결하려는 동기가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유아가 과제 수행에 대해 어떤 동기를 내면화하고 있는지는 곧 이후의 학습을 위한 심리적 준비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아의 동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국내의 유아들이 어떤 유형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발달적으로 적응적인 특성의 동기를 내면화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동기 유형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유아의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기질을 비롯하여, 유아기의 자녀와 함께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과 질이 유아의 동기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유아의 동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유아의 동기와 관련된 어머니의 상호작용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자녀가 이후의 발달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기 유형을 내면화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연구문제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동기 유형과 기질,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 및 질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동기 유형 집단별 유아의 기질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동기 유형 집단별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유아의 동기 유형 집단별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기타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3, 4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로 구성된 어머니-유아 48쌍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유아가 내재적 동기를 형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유능성과 자율성은 자기조절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Carlton & Winsler, 1998)에 근거하여, 발달적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만 3세 이상의 유아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으며, 동기 측정 과제의 인지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만 5세 이상의 유아는 표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회의 가정방문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임의로 표집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유아는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유아와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유아의 평균 월령은 48.38개월($SD = 5.66$, $Min. = 37.00$, $Max. = 60.00$)이었고, 여아가 26명(54.2%)으로, 남아($n = 22$, 45.8%)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어머니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6.08세($SD = 2.78$, $Min. = 30.42$, $Max. = 41.83$)로, 40대 6명(12.5%)을 제외한 대다수가 30대였다($n = 42$, 87.5%).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32명(64.0%)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 11명(22.9%), 전문대졸 5명(10.4%)의 순서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업주부가 3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전문대졸 이하가 5명(10.4%)으로, 고졸 1명(2.1%)이 포함되었다. 대학 졸업자는 28명(58.3%)이었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는 15명(31.3%)이었다. 월평균 가계 소득의 분포를 보면, 100만 원 미만 2명(4.2%),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5명(10.4%),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8명(37.5%),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13명(27.1%), 700만 원 이상 10명(20.8%)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동기 유형

유아의 동기 유형은 Smiley와 Dweck(1994)에서 아동의 성취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과제를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의 연령 및 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퍼즐을 활용한 이들의 방식은 원래 유아의 성취 목표를 살펴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지만 이후의 연구(Chang & Burns, 2005; Harris, Robinson, Chang, & Burns, 2007)에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아의 동기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이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기 유형 측정의 외적 타당도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가 퍼즐과 칠교를 이용한 두 가지 과제를 각각 다른 시기에 수행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동기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아의 동기 유형 구분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는 유아의 과제 선택과 선택의 이유, 과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 및 태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Kelley, Brownell, & Campbell, 2000).

유아의 동기를 평정하기 위한 퍼즐 과제에는 유아에게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다섯 가지의 퍼즐을 이용하였다. 그중 두 가지 퍼즐은 모든 조각이 맞는 퍼즐로, 사전검사에서 유아의 퍼즐 수행 능력을 활용하는 데 활용되었다. 본검사에서 이 중 하나의 퍼즐과 일부 조각이 맞지 않는 퍼즐 세 가지가 제공되어, 유아는 총 네 종류의 퍼즐을 수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유아의 퍼즐 수행 능력에 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퍼즐의 난이도를 상·하 두 종류로 구분하여 준비하였다. 유아에게 제공하는 퍼즐의 난이도는 사전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퍼즐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유아에게 완성된 퍼즐의 그림(흑백 복사본)을 보여주었다. 유아에게는 일부 조각이 맞지 않는 퍼즐(3가지)과 모든 조각이 맞는 퍼즐 순서로 과제가 제공되었다. 유아가 조각이 맞지 않는 퍼즐을 풀 때는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그 퍼즐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였다. 실패한 퍼즐은 미완성된 상태로 한쪽에 두어, 유아가 자신의 수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성공 가능한 퍼즐을 제공하여 유아가 실패 경험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였다. 네 종류의 퍼즐에 대한 수행이 끝난 뒤 실험자는 유아가 수행한 퍼즐들을 보여주며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을 다시 해 보고 싶은

지 물어보고, 그 이유를 확인하였다. 유아가 선택한 퍼즐에 대해 모두 맞는 조각을 제공하여 다시 풀어 보도록 하며, 이때는 유아가 과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유아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칠교놀이를 응용한 도형구성 과제였다. 도형구성 과제는 도형(블록)을 조작하여 주어진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진행 방식과 원리는 퍼즐 과제와 유사하다. 나무 재질의 칠교 블록은 총 7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블록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칠교 과제의 난이도는 힌트의 유형으로 조절하였다. 힌트는 칠교 조각이 놓여야 할 위치에 블록과 동일한 모양과 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본 검사에서 유아는 먼저 쉬운 과제를 풀 다음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유아는 쉬운 과제와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를 택했다.

칠교놀이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들은 사전 검사를 통해 그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각 과제를 수행할 때는 1분의 제한시간을 두어,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유아가 자연스럽게 실패 상황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연히 실패과제 중 일부를 성공하는 유아도 있었으나, 그 경우에도 추가 과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실패과제를 선택하여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험자가 유아에게 비계를 제공함으로써 유아 혼자 과제를 성공하도록 유도하였다. 동기 유형을 평정하는 기준은 퍼즐 과제와 동일하다.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은 Lee(2004)가 번역한 Rothbart (2000)의 단축형 유아기질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 CBQ-SF)를 수정·보

완하여 측정하였다. CBQ-SF에는 총 94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3개의 상위영역과 1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 부정적 정서, 의도적 통제 세 상위영역의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근 6개월 간 유아가 보인 특성에 대해 어머니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해당 없음’의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모든 응답에 대한 채점은 Rothbart(2000)가 제시한 방식에 따랐다. 신뢰도 산출 결과 ‘부정적 정서’와 관련하여, 내적일관성을 현저하게 낮추는 두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Putnam과 Rothbart(2006)가 제시한 CBQ-SF의 신뢰도 계수는 .64에서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영역별 내적일관성 수치는 외향성 .76, 부정적 정서 .72, 의도적 통제 .78이었다.

3) 어머니-유아 간의 상호작용

어머니와 유아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작용 전략과 질적 특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

자녀와의 놀이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상호작용의 전략은 Kim과 Kim(2001), Kochanska, Kuczynski와 Radke-Yarrow(1989), Kuczynski, Kochanska, Radke-Yarrow와 Girmius-Brown(1987)에서 제시한 상호작용 범주를 근거로 평정하였다. Kochanska 등(1989)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행동을 지시, 제안, 비난, 격려, 설명, 타협, 대안 제시, 물리적 강제, 금지하는 개입의 9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Kim과 Kim(2001)은 ‘물리적 강제’와 ‘금지하는

개입’을 대신하여 유아의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피드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Kim과 Kim(2001)이 Kochanska 등(1989)의 상호작용 범주를 기초로 구분한 8가지 전략을 수정·보완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상호작용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자녀에게 표본의 10%에 해당하는 다섯 사례를 추출하여 평정자 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는 .88에서 .98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

유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를 통해 관찰되는 상호작용의 질은 Pomerleau-Laroche, Bureau와 Moss(2005)의 Grille d'interactions parent-enfant pour la période scolaire(GIPEPS)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GIPEPS는 학령기 아동과 부모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척도이지만, 유아기의 아동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원저자 Ellen Moss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원도구의 번역,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GIPEPS는 부모에게서 관찰되는 상호작용의 질, 아동에게서 관찰되는 상호작용의 질,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관찰되는 상호작용의 질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측면에서 상호작용은 분위기, 협력, 태도의 세 가지 영역에서 측정되었다. 먼저 분위기의 영역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 정서적 공감, 애정 표현, 회피, 긴장, 적대감을, 협력의 영역에서는 파트너십, 의사소통의 질, 아동의 관점 및 경험을 기준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부모의 노력, 부모 관점에서의 설명, 관계 유형의 일관성, 역할반전을, 태도의 영역에서는 부모의 권

〈Table 1〉 The example of scale for quality of maternal interactions

Sub factor	Item	High quality	—	Low quality
Climate of dyadic relationship	Emotional sharing	<u>Partners often share a similar affect.</u>	—	<u>Partners do not usually share a similar affect.</u>
		e.g. Partners take pleasure together. They laugh and smile.		e.g. The mother laughs when the child is sad.
Coordination	Effectiveness of partnership	<u>The process to get the goal is well coordinated.</u>	—	<u>The process to get the goal is uncoordinated..</u>
		e.g. Partners negotiate and reach consensus.		e.g. False achieving the goal because a partner offers an unrealistic solution.
Parental attitude	Parental authority	<u>The mother has a clearly democratic style.</u>	—	<u>The mother has a clearly authoritarian of permissive style.</u>
		e.g. It is conciliatory offers choices, it is able to compromise.		e.g. The mother ignores the needs of the child.

위와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측면을 평가하였다. 각 세부항목에 대해 0~3점의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을 평가한 점수의 합으로 상호작용 질의 총점을 산출하였다. 각 하위 영역 중 하나의 세부항목을 예로 들어, 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척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무작위로 선정한 10개의 사례에 대해 영역별 평정자 간 신뢰도는 모두 .85 이상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어머니와 유아 48쌍을 대상으로 하여, 세 차례의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만 3, 4세 유아를 둔 어머니들을 가운데 연구 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하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였다.

두 쌍의 쌍둥이를 포함한 총 56쌍의 어머니와 자녀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그 중에서 건강

상의 이유로 인해 중도에 그만둔 아동과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모자, 동기 유형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제삼의 요인으로 인해 방해를 받아 정확한 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운 유아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무작위로 한 명의 유아만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48쌍의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중 4명의 경우에는 1회 이상의 상호작용에 동생이 함께 하였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면에서 다른 연구대상과 차이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동생과 함께 있는 것이 보다 평소의 상황과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동생에 대한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예비조사

연구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아 6명을 대상으로 동기 측정 및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측정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

의한 가정에 연구자와 보조 관찰자 1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를 통해 동기 유형을 평정하기 위한 실험과 상호작용 관찰을 위한 연구방법을 적용해 봄으로써 본조사에서 사용할 퍼즐 및 칠교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상호작용 관찰 방식을 2인 평가자의 직접 관찰 대신 비디오 촬영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2) 평가자 훈련

연구변인 중 관찰을 통해 분석 자료를 획득하게 되는 유아의 동기 유형 및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의 전략과 질은 각 변인마다 두 명의 평가자에 의해 측정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를 제외한 평가자들은 모두 유아의 개인적 특성 및 다른 연구변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변인을 평정하였다.

변인에 따른 평가자 훈련 과정을 제시하면, 먼저 유아의 동기 유형을 판별하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두 명의 평가자가 숙달 동기와 수행 접근 동기와 수행회피 동기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 숙지하였고, 평가의 기준에 대해 협의하였다. 비디오로 녹화된 각각의 실험 과정을 관찰한 후 각자 판단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평가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재평가하였다. Ryan과 Deci(2000)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같은 사람이라도 과제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동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우세한 성향을 찾아 분류하기 위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유아에 대해서는 두 번의 실험과정을 다시 검토한 후 평가자가 각자 판단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전략과 질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단위를 설정하고, 각 분석단위에 사용된 상호작용

전략을 범주화하기 위해 평가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의 전략과 질은 각각 다른 두 명의 평가자들에 의해 평정되었다. 평가자 훈련을 위해 먼저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이 녹화된 장면을 이용하여 연구자와 함께 각 요인의 정의와 사례 및 평정 지침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였다. 상호작용이 녹화된 장면을 평가하면서 각 항목에 대한 점수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침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평가자 간에 서로 논의하여 일치도가 높아지도록 조정하였다. 상관계수로 본 평가자 간 신뢰도가 .90 이상 산출되었을 때 본 연구대상의 상호작용 장면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3) 본조사

본조사는 각 연구대상(어머니-유아)별로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회기는 대개 1주일 전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유아 및 부모의 사정(예: 유아의 건강상태, 이사, 어머니의 일정 변동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였다. 첫 번째 회기에서 연구대상 유아의 전반적 퍼즐 능력 및 도형구성 능력을 평가한 후 퍼즐과 도형을 이용한 동기의 사전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때 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유아에게 제공되는 퍼즐 과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근거로 하였다. 두 번째 회기와 세 번째 회기에서는 유아의 동기 유형 측정과 어머니-유아 간의 상호작용 관찰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회기에서의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 관찰 상황에서는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블록을 이용하여 놀이하도록 하고 그 상황을 비디오로 기록하였다. 세 번째 회기에서 유아는 어머니와 함께 미술재료를 이용한 자유놀이를 하도록 하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평정하였다. 미술재료로는 백상지와 그리기 작

업을 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만들기 작업이 가능한 4가지 색의 점토를 제공하였다. 소재의 특성상 크레파스의 뚜껑을 여닫거나, 점토의 포장지를 뜯는 부분에서는 어머니의 도움이 요구되었다. 재료 및 주제는 어머니와 유아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유아 간의 놀이 녹화는 15분~20분 간 이루어졌지만, 평가자는 일괄적으로 15분 동안 이루어진 상호작용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첫 방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화 통화로 어머니에게 연구의 내용과 진행 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첫 번째 방문에서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안내문과 동의서,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기질에 대한 설문지도 어머니께 전달하였고, 두 번째 방문에서 회수하였다. 마지막 방문에서는 일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에 앞서 먼저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관찰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찰자 간의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연구변인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정에 있어서 범주를 구분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평균 차이의 비교 대상이 되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상정하는 경우, 독립변수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에 차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동기 유형을 원인으로 보

기 때문이 아니라, 동기 유형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에 속하는 유아와 어머니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차이검정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한 후, 정규성이 가정된 변인에 대해서는 ANOVA를, 그렇지 않은 변인에 대해서는 Kruskal-Wallis 검정을 시행하였다. ANOVA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비모수 검정 방식 Kruskal-Wallis 분석은 사후분석 방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두 집단씩 Mann-Whitney의 U검정을 시행함으로써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집단을 확인하였다. 범주형 척도로 측정된 성별에 대해서는 χ^2 분석을 통해 집단 간 빈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상호작용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관찰 시간 동안 각 전략을 사용한 빈도를 산출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상호작용 전략의 사용 횟수를 100으로 상정했을 때 차지하는 백분율도 함께 보았다. 이는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특정한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는 횟수의 절대값만이 아니라 전체 상호작용 중에서 해당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의 분석에서도 빈도와 백분율을 모두 변수로 투입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유아의 동기 유형과 기질,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 및 질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유아의 동기 유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수행 접근 동기를 나타내는 유아($n = 19, 39.6\%$)가 가장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N* = 48)

	Variables	Mean	<i>SD</i>	Mean of items	<i>Min.</i>	<i>Max.</i>	Total range
Temperament	Extraversion	165.79	16.95	4.48	129.00	214.00	37~259
	Negative affectivity	142.47	13.19	4.91	117.00	170.00	29~203
	Effortful control	141.21	13.46	5.43	105.00	168.00	26~182
Strategies of maternal interaction	Frequency						
	Feedback	55.01	13.56	-	26.00	90.00	-
	Explanations	20.26	14.24	-	2.00	50.00	-
	Suggestions	20.18	14.83	-	2.00	98.00	-
	Requests	4.77	4.45	-	.00	17.00	-
	Positive incentives	5.43	3.11	-	1.00	14.00	-
	Questions	26.09	8.31	-	15.00	50.00	-
	Reprimands	1.40	2.16	-	.00	8.00	-
	Commands	3.05	3.82	-	.00	14.00	-
	%						
	Feedback	41.32	9.60	-	20.24	60.47	-
	Explanations	13.45	7.24	-	1.94	28.57	-
	Suggestions	15.07	6.38	-	2.60	39.68	-
	Requests	3.32	2.76	-	.00	10.37	-
	Positive incentives	4.13	2.80	-	.83	12.50	-
Quality of maternal interaction	Questions	19.32	5.10	-	10.82	33.77	-
	Reprimands	1.04	1.62	-	.00	6.80	-
	Commands	2.35	2.81	-	.00	10.34	-
	Mood	27.97	3.38	4.66	20.00	35.00	0~36
	Cooperation	30.76	2.71	5.13	24.00	35.00	0~36
	Attitude	9.86	1.58	4.93	5.00	12.00	0~12
	Total	68.59	6.79	4.90	52.00	81.00	0~84

많았고, 숙달 동기를 나타내는 유아(*n* = 16, 33.3%)가 그 뒤를 이었으며, 수행회피 동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아(*n* = 13, 27.1%)가 가장 적었다.

기술통계분석의 결과, 유아의 기질 중 외향성은 평균 165.79(*SD* = 16.95), 부정적 정서는 142.47(*SD* = 13.19), 의도적 통제는 141.32(*SD* = 13.46)

로 나타났다(Table 2).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사용한 각 상호작용 전략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유아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담긴 반응을 하는 피드백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 사용 전략의 41.32%로 가장 많았고

($M = 55.01$, $SD = 13.56$), 의견 묻기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19.32%로 그 뒤를 이었다($M = 26.09$, $SD = 8.31$). 이어서 제안과 설명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각각 15.07% ($M = 20.18$, $SD = 14.83$), 13.45% ($M = 20.26$, $SD = 14.24$)를 차지했고, 칭찬 및 격려 4.13% ($M = 5.43$, $SD = 3.11$), 권유 3.32% ($M = 4.77$, $SD = 4.45$), 지시 2.35% ($M = 3.05$, $SD = 3.82$), 비난 1.04% ($M = 1.40$, $SD = 2.16$) 순으로 이어졌다.

어머니에게서 관찰된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영역별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분위기 점수는 평균 27.97($SD = 3.38$), 협력은 30.76($SD = 2.71$), 태도는 9.86($SD = 1.58$)이었으며, 이를 합산한 전체 점수의 평균은 68.59($SD = 6.79$)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동기 유형 집단별 유아의 기질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의 일부로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주목하여, 유아의 동기 유형 집단별로 기질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기질은 외향성, 부정적 정서, 의도적 통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다. 기질을 구성하는 요인은 분포의 정규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ANOVA를 통해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그 결과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3. 유아의 동기 유형 집단별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의 차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상호작용 전략과 유아의 동기 유형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기 유형에 따른 어머니

의 상호작용 전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상호작용 전략의 유형별 빈도와 각 유형의 전략이 전체 상호작용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상호작용 전략 관련 변수로 투입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의 사용 빈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피드백($F = 3.50$, $p < .05$), 권유($\chi^2 = 4.86$, $p < .10$), 의견 묻기($F = 4.29$, $p < .05$)에서 유아의 동기 유형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밝혀진 권유 전략에 대해, 직접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두 집단씩 Mann-Whitney의 U 검정을 시행한 결과, 숙달 동기와 수행회피 동기($Z = 1.99$, $p = .05$), 숙달 동기와 수행회피 동기($Z = 1.78$, $p < .10$) 사이에서 근소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숙달 동기와 수행접근 동기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곧 수행회피 동기를 가진 유아의 어머니에 비해 숙달 동거나 수행접근 동기를 가진 유아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권유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했음을 뜻한다.

ANOVA를 통해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나타난 피드백과 의견 묻기 전략의 경우, Scheffé 검정을 통해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집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피드백의 경우에는 수행회피 동기 집단의 평균보다 숙달 동기 집단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수행회피 동기를 나타내는 유아의 어머니들과 비교했을 때, 숙달 동기를 보이는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피드백을 더 자주 했음을 의미한다. 피드백의 사용 횟수에 대해 수행접근 동기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Table 3〉 Differences in types of young children's motivation among variables ($N = 48$)

			Types of young children's motivation			F/χ^2
			Mastery ($n = 16$)	Performance-approach ($n = 19$)	Performance-avoid($n = 13$)	
			$M (SD)$	$M (SD)$	$M (SD)$	
Personal aspects	Temperament	Extraversion	160.69(14.38)	168.53(19.36)	168.25(15.75)	1.10
		Negative affectivity	143.25(13.30)	142.58(10.32)	141.25(17.61)	.08
		Effortful control	144.31(14.42)	138.32(14.37)	141.62(10.67)	.87
Strategies of maternal interaction	Frequency	Feedback	60.81(14.61) ^a	54.87(13.37) ^{ab}	48.08(9.41) ^b	3.50 [*]
		Explanations ^(a)	25.94(14.37)	16.03(13.48)	19.46(13.84)	4.14
		Suggestions ^(a)	24.22(10.96)	17.63(7.20)	26.31(24.02)	3.56
		Requests ^(a)	6.00(4.84) ^a	4.74(3.97) ^a	3.31(4.52) ^b	4.86 [†]
		Positive incentives ^(a)	4.94(2.08)	5.61(3.74)	5.77(3.30)	.30
		Questions	30.41(9.18) ^a	22.68(6.52) ^b	25.77(7.63) ^{ab}	4.29 [*]
		Reprimands ^(a)	1.38(2.22)	1.21(1.84)	1.69(2.63)	.04
		Commands ^(a)	2.56(4.36)	2.61(3.57)	4.31(3.47)	4.41
	%	Feedback	39.45(7.62)	44.55(8.47)	38.91(12.38)	1.86
		Explanations ^(a)	15.84(7.07)	11.77(7.72)	12.96(6.41)	3.55
		Suggestions ^(a)	15.06(6.02)	13.73(4.52)	17.06(8.74)	.63
		Requests ^(a)	3.81(2.73) ^a	3.69(2.70) ^a	2.19(2.79) ^b	5.51 [†]
		Positive incentives ^(a)	3.12(1.27)	4.61(3.19)	4.67(3.37)	1.34
		Questions	20.25(6.98)	18.32(3.88)	19.00(3.38)	.64
		Reprimands ^(a)	.84(1.19)	1.07(1.63)	1.23(2.09)	.02
		Commands ^(a)	1.65(2.57) ^b	2.26(3.01) ^{ab}	3.34(2.70) ^a	4.73 [†]
	Quality of maternal interaction	Mood	29.75(2.08) ^a	26.89(4.21) ^b	27.23(2.52) ^b	3.89 [*]
		Cooperation	31.38(1.59)	30.21(3.43)	30.54(2.54)	.84
		Attitude ^(a)	10.13(1.20)	9.58(1.98)	9.85(1.28)	.30
		Total	71.25(3.42)	67.03(9.05)	67.62(5.36)	1.88

[†] $p < .10$. ^{*} $p < .05$.

Note 1. a, b: results of Scheffé post hoc test ($a > b$).

Note 2. (a): variable that applied non-parametric statistics.

나타내지 않았다.

의견 묻기 전략에 대해서는 숙달 동기 집단과 수행접근 동기 집단의 사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수행접근 동기를 가진 유

아의 어머니에 비해 숙달 동기를 가진 유아의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놀이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유아의 의견을 더 많이 물어보았다. 이에 비해 수행회피 동기는 다른 어느 집단과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가 사용한 각각의 상호작용 전략 빈도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백분율로 환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권유 및 지시의 전략을 사용하는 비중이 집단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권유 전략의 사용 빈도를 비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권유 전략과 지시 전략의 사용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행회피 동기 집단의 어머니들과 비교했을 때 숙달 동기($Z = 2.02, p < .05$) 및 수행접근($Z = 2.11, p < .05$) 집단의 어머니들이 전체 상호작용 전략 중 권유 전략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시 전략에 대해서는 숙달 동기 집단과 수행회피 집단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밝혀졌다. 즉 숙달 동기 집단의 어머니에 비해 수행회피 동기 집단의 어머니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시의 전략을 사용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Z = 2.14, p < .05$). 지시 전략의 비중에 대해 수행접근 동기 집단은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유아의 동기 유형 집단별 어머니의 상호작용 질의 차이

자녀와의 놀이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동기 유형 집단별로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위기, 협력, 상호작용의 질 전체 점수에 대해서는 ANOVA를, 태도에 대해서는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질의 하위 요인들 가운데 분위기에 대해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3.89, p < .05$). 사후검정 결과를 통해서는 수행접근 동기 및 수행회피 동

기 집단에 비해 숙달 동기 집단의 분위기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다른 집단의 어머니들에 비해 숙달 동기를 가진 유아의 어머니들이 놀이 상황에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 자녀와의 정서적 공감이나 애정 표현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긴장이나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덜 나타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에 나타나는 동기 유형에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유아의 기질, 어머니-유아 간 상호작용에서 관찰되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 및 상호작용의 질을 변인으로 하여 유아의 동기 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 4세 유아의 동기 유형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수행접근 동기를 가진 유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숙달 동기를 가진 유아가 그 뒤를 이었으며 수행회피 동기를 가진 유아가 가장 적었다. 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시행한 것과 유사한 실험을 통해 아동의 동기 유형을 확인한 연구들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Chang과 Burns(2005)에서는 표본($n = 73$)의 60%가 숙달 동기로, 나머지 40%가 수행 동기로 분류되었으며, Harris 등(2007)에서는 61명 중 60.7%가 숙달 동기를, 나머지 39.3%가 수행 동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Smiley와 Dweck(1994)의 연구에서는 78명의 유아 중 58%가 숙달지향을 보였고, 42%가 수행지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Hokoda와 Fincham(1995)에서는 숙달지향과 무기력지향이 각각 11명과 10명으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나타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동기 유형의 분류 기준으로 숙달 동기와 수행 동기의 이분법적 범주를 적용했기 때문에, 수행 동기를 접근과 회피의 차원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다룬 본 연구의 결과와 단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만 유독 수행 동기를 나타낸 유아가 숙달 동기를 보인 유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수행접근 성향의 비율이 높은 현상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내의 선행연구(Park & Lew, 2010; Yang & Oh, 2006)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숙달 동기에 비해 수행 동기를 가진 유아의 비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는 그만큼 많은 유아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정 자체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기보다, 수행 결과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했을 때 큰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다른 과제에 대한 흥미로 이어지게 된다.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정에서의 호기심 때문에 다시 도전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기 쉽다. 반면, 과제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제를 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하나의 과제에 대해 성공적인 경험을 한 후에도 다음 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보다 또 다른 일로 인식하게 된다.

수행 동기 가운데서도 수행회피 동기에 비해 수행접근 동기를 가진 유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하여, 단지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을 목적으로 삼는다고는 해도 과제 수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수행접근 동기를 가진 유아도 과제 수행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현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유형의 동기를 가진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숙달 동기를 가진 유아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 해당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접할 때 포기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자발적인 심리적 욕구와 흥미에 의해 행동하는 숙달 동기와 비교할 때 수행접근 동기는 행동을 발생시키는 심리적 기제가 결과에 대한 외적인 평가나 타인과의 경쟁 등의 외부 유인(誘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Schunk et al., 2010), 외국의 경우에 비해 국내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어릴 때부터 외적 평가와 경쟁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동기 유형 집단 간에 기질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룬 기질의 하위유형인 외향성, 부정적 정서, 의도적 통제 모두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동기 유형이 개인의 선천적 특성보다는 발달 과정에서 접하는 환경 및 경험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질 중의 일부 특성이 동기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Harris et al., 2007; Judge & Ilies, 2002; Rothbart & Jones, 1998)이 있으나, 이에 반하는 연구결과를 나타낸 경우(Chang & Burns, 2005)도 있다. 특히 연구대상을 유아기로 한정했을 때 기질과 동기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

은 데다가, 그 결과가 분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 연구대상의 문화적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의 동기 유형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때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은 각 전략의 사용 빈도와 전체 상호작용 전략 중 해당 전략을 사용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가 사용하는 상호작용 전략 중 피드백과 의견 묻기 전략은 빈도에 있어서 동기의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권유의 전략은 빈도와 비중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유아의 동기 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 전략의 경우에는 사용 비중에 있어서만 동기 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행 동기 집단, 또는 그중 일부와 비교했을 때 숙달 동기 집단의 어머니들은 피드백과 의견 묻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고, 상대적으로 지시 전략을 사용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권유 전략의 경우에는 수행회피 동기 집단에 비해 숙달 동기 집단과 수행접근 동기 집단의 어머니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큰 비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련의 결과들은 유아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상호작용 전략이 유아의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피드백의 경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아동이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수용하거나 옹고 그릇에 대해 최소한으로 반응해 주는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전략들과 구별된다. 특별한 의미나 의도를 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피드백이 유아의 동기 유형과 관련성을 나타내는 까닭은 피드백을 하는 행동 자체가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아의 말과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가 자녀의 말에 귀기울이고 있고, 자녀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어머니의 피드백을 통해 유아는 놀이 상황 내내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Deci, Vallerand, Pelletier와 Ryan(1991)이 내재적 동기의 기원으로 자율성 및 유능성과 함께, 관계성을 제시했던 것에 비추어 생각해 볼 만하다.

이에 비해 의견 묻기 전략, 권유 전략, 지시 전략은 유아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유아의 숙달 동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의견 묻기 전략의 경우에는 질문의 목적이 유아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든, 혹은 유아의 견해를 묻는 것이든 간에, 유아가 생각한 것에 대해 옹고 그르다는 가정 없이 개방적인 자세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는 데에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의견 물어볼 때에는 유아의 관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유아를 대할 때 유아는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다.

권유 전략과 지시 전략은 모두 어머니가 바라는 것을 유아에게 전달하는 상호작용 전략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 전략이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동기 유형과의 관련성에서 대조적인 양상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권유형 표현으로 전달했을 때와 지시형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했을 때, 이를 수용하는 유아는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그들이 어머니의 요구를 얼마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가와 관련된다. 어머니가 권유 전략을 사용할 때 실제로는 자녀에

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을 둔 것은 아닐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유아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에게 지시나 명령조의 말을 들었을 때보다 권유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자신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의견 묻기 전략에 대해 논의할 때 다루었던 자율성의 측면과도 이어진다. 일련의 결과들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 전략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자녀의 숙달지향적 태도를 고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동기 유형을 결정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과 함께 살펴보았던 상호작용의 질에 대해서는 하위요인 중 분위기에 대해서만 동기 유형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행 접근 목표 및 수행회피 동기 집단에 비해 숙달 동기 집단의 어머니가 분위기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의 질을 나타냈다. 여기서 살펴본 상호작용의 분위기는 어머니와 유아 간의 놀이 상황 전반의 분위기와 그 안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기분 상태, 자녀가 나타내는 정서에 대한 공감적인 반응과 친밀감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동기에 대해 부모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Bao & Lam, 2008; Harris et al., 2007; Kelley et al., 2000; Meij et al., 2000)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내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 행동이 자녀의 성취 동기를 촉진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Park & Lee, 2005). 일련의 선행연구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정서적 태도가 아동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상호작용 질의 하위요인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부모로서의 태도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평정한 어머니의 태도는 동기와 관련이 없었다. 이를 통해 유아의 동기를 촉진하는 데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전반적인 어머니의 양육 스타일보다 정서적인 공감과 편안한 분위기가 더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숙달 동기에 비해 수행 동기를 가진 유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에 따라 유아의 숙달 동기를 촉진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행 접근 동기를 가진 유아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과제 수행에 대해 의지를 가진 유아들이 수행 과정 안에서 느끼는 흥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가령 유아들이 새로운 과제를 통해 학습하게 될 때에는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유아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거나 유아를 자극하려 하기보다, 유아가 학습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 중 일부가 유아의 동기 유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일지라도 기술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유아가 숙달 동기를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는 어머니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양질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겠지만, 양육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상호작용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녀의 숙달 동기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녀의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동안 어머니가 조성하는 분위기가 유아의 동기 유형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유아의 숙달 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자녀의 동기와 관련된 측면에 한정해서 본다면,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해 주는 것이다. 특히 놀이 상황에서는 유아가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온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표본 크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과, 연구대상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와 자녀를 중심으로 임의 표집 및 눈덩이 표집 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동기 유형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해석할 때, 결과의 차이가 표본의 특성인지, 혹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결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보다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동기연구가 더 필요하다.

셋째, 동기 유형의 측정 방식에 있어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을 참조하였으나 예비연구를 통해 국내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다. 문화적 특성상 선행연구에 제시된 수준과

시간으로는 유아의 과제 수행 실패를 유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아들 간에 퍼즐 수행 능력의 편차가 컸기 때문에 사전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두 가지 난이도 중 하나의 퍼즐을 선정하여 본 검사에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퍼즐 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분석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국내 유아의 상황에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연구방법의 타당도를 향상 시킬과 동시에 유아의 동기 유형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어머니가 카메라를 의식하여 있는 그대로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가정에 방문해서 진행하였고, 관찰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험자는 연구대상이 보이지 않는 장소로 자리를 피해 있었지만, 관찰 상황임을 의식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숨겨 놓은 카메라로 촬영하고 추후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 관찰된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보다 진솔한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 및 특성과 유아의 동기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는 점에 대해 짚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유아의 숙달 동기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반응 양상에서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동기의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실패 과제에 대해 유아가 어느 정도의 도전 성향을 나타내고, 과제 수행에서 얼마나 지속성을 나타냈는지를 다루었다는 점

을 상기할 때,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는 상황을 제공하고, 그 때 드러나는 어머니의 특징적인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의 동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유아가 가진 동기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동기 유형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유아가 숙달 동기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유아가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했을 때, 학습한 내용과 당장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유아 스스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숙달하려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기는 그 과정을 이루는 심리적 기제로서, 본 연구는 이러한 유아기 동기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유아의 동기 연구에 하나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References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271.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3), 260-267.
- Bak, B., & Lee, J.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2×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1), 327-352.
- Bao, X. H., & Lam, S. F. (2008). Who makes the choice? Rethinking the role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hinese children's motivation. *Child Development, 79*(2), 269-283.
- Carlton, M. P., & Winsler, A. (1998). Fostering intrinsic motivation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5*(3), 159-166.
- Chang, F., & Burns, B. M. (2005). Attention in preschoolers: Associations with effortful control and motivation. *Child Development, 76*(1), 247-263.
- Cimpian, A., Arce, H. M. C., Markman, E. M., & Dweck, C. S. (2007). Subtle linguistic cues affect children's motivation. *Psychological Science, 18*(4), 314-316.
- Deci, E. L., Driver, R. E., Hotchkiss, L., Robbins, R. J., & Wilson, I. M. (1993). The relation of mothers' controlling vocalizations to children's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5*(2), 151-162.
- Deci, E. L., Vallerand, R. J., Pelletier, L. G., & Ryan, R. M. (1991).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325-346.
- Do, K. (2008). Relation among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father-child communication style,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4), 139-155.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10), 1040-1048.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256-273.
- Ellio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34(3), 169-189.
- Elliot, A. J., & Thrash, T. M. (2002).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in personality: Approach and avoidance temperament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804-818.
- Franken, R. E. (2007). *Human motivation (6th Ed)*. USA: Wadsworth Publishing.
- Froiland, J. M., Oros, E., Smith, L., & Hirschert, T. (2012). Intrinsic motivation to learn: The nexus between psychological health and academic success. *Contemporary School Psychology*, 16, 91-100.
- Harris, R. C., Robinson, J. B., Chang, F., & Burns, B. M. (2007). Characterizing preschool children's attention regulation in parent-child interactions: The roles of effortful control and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25-39.
- Hokoda, A., & Fincham, F. D. (1995). Origins of children's helpless and mastery achievement patterns in the famil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3), 375-385.
- Judge, T. A., & Ilies, R. (2002).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performance motiva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4), 797-807.
- Kelley, S. A., Brownell, C. A., & Campbell, S. B. (2000). Mastery motivation and self-evaluative affect in toddlers: Longitudinal relations with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71(4), 1061-1071.
- Kim, H. K., & Kim, H. J. (2001). Strategy and quality of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77-90.
- Kim, K., Doh, H., & Park, S. (2010).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2), 209-227.
- Kochanska, G., Kuczynski, L., & Radke-Yarrow, M. (1989). Correspondence between mothers' self-reported and observed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0(1), 56-63.
-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 Ginius-Brown, O. (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6), 799-806.
- Lee, K. (2004). Validation study for CBQ scale with Korean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5), 101-120.
- Meij, H. T., Riksen-Walraven, J. M., & Van Lieshout, C. F. (2000). Longitudinal patterns of parental support as predictors of children's competence motivatio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60(1), 1-15.
- Park, H., & Lee, K. (2005). The effects of mother's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on children's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4), 547-559.
- Park, S., & Lew, K. (2010). The relationships among motivation types of achievement goal, creative

- thinking ability, and creative personality of 4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1), 139-160.
- Patall, E. A., Cooper, H., & Robinson, J. C. (2008). The effects of choice on intrinsic motivation and related outcomes: A meta-analysis of research findings. *Psychological Bulletin*, 134(2), 270-300.
- Pintrich, P. R. (2000). An achievement goal theory perspective on issues in motivation terminology, theory, and researc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92-104.
- Pomerleau-Laroche, M.-E., Bureau, J.-F., & Moss, E. (2005). *Grille d'interactions parent-enfant pour la période scolaire(GIPEPS): Manuel de codification*. Unpublished manuscript.
- Putnam, S.,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3-113.
- Reeve, J. (2009).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NJ: John Wiley & Sons.
- Rothbart, M. K. (2000).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Short Form Version 1*. Unpublished document.
- Rothbart, M. K., & Jones, L. B. (1998). Temperament, self-regulation, and education. *School Psychology Review*, 27(4), 479-491.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Schunk, D. H., Pintrich, P. R., & Meece, J. L. (2010).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J: Pearson.
- Skaalvik, E. M. (1997). Self-enhancing and self-defeating ego orientation: Relations with task and avoidance orientation, achievement, self-perceptions, and anxie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1), 71-81.
- Smiley, P. A., & Dweck, C. S.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achievement goals among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6), 1723-1743.
- Yang, M., & Oh, J. (2006).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2×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3), 745-764.
- Yang, M. H., & Cheong, Y. S. (2012). A longitudinal study on the students with high academic motivation and their developmental changes with tim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7), 191-214.
- Zentall, S. R., & Morris, B. J. (2010). "Good job, you're so smart": The effects of inconsistency of praise type on young children's mot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7(2), 155-163.

Received May 30, 2014

Revision received July 21, 2014

Accepted August 4, 2014